

철강산업

중국 완화된 철강감산정책 발표

Industry Comment | 2018. 10. 5

중국정부의 2018-2019년 가을-겨울철 철강 감산정책은 기대했던 것 보다 완화되어 발표. 지난 8월의 의견수렴안에서는 최소 작년과 같은 강도로 감산이 시행될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실망

중국 환경부, 2018-2019년 가을-겨울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 9월 27일에 2018-2019년 가을-겨울철 징진지(京津冀)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 완화정책 가이드라인 발표.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초미세먼지 PM2.5의 평균농도를 전년대비 3%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

PM2.5 농도 3% 감축은 7월 3일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Blue Sky Protection' 캠페인에서 언급되었던 2018년 목표 5%보다 낮아진 것이고, 2017년 난방기 감산 목표였던 15% 대비로는 크게 하락한 것. 그리고, 지난 8월의 의견수렴안에서 특정지역 철강 감산비율을 30~50%로 명시하였던 것과는 달리, 최종안에서는 감산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국 철강시장에서는 작년에 비해 2018-2019년 가을-겨울철 감산 강도가 다소 완화되었다고 판단

다만, 일각에서는 2017-2018년 감산기간에 PM2.5 농도의 15% 감소를 목표로 강도 높게 정책이 시행됐었기 때문에, 올해 3% 추가 감축 또한 유의미한 철강 감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어

국경절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감산 완화에 대한 우려로 철강가격 소폭 하락

9월 27일 2018-2019년 가을-겨울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철강 감산 정책이 발표된 후 이틀간 선물시장에서 열연과 철근의 가격('19년 1월물)은 각각 1.9%, 2.8% 하락. 이는 중국 국경절 연휴(10.1~ 10.7)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강한 상황에서 철강 감산정책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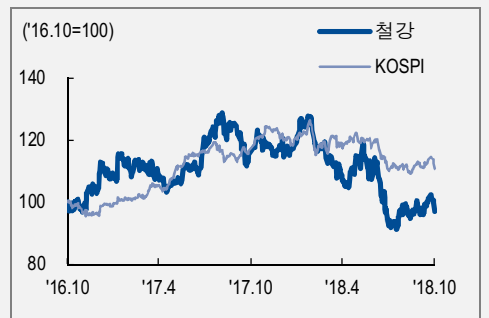
가을-겨울철 철강 감산 완화에 대한 중국내 우려 있지만, 국경절 연휴 이후 철강가격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 이는 1) 지난 3월 전년대비 29.9%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였던 철강재 유통재고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4.4% y-y)까지 낮아졌고 2)전국 고로가동률이 85.2%로 전년대비 6.3%p 낮은 수준이며 3)인프라(주로 교통) 투자 집행이 재개되며 철강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다만, 국경절 연휴 종료 후 철강가격 반등에 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 중-미간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겨울철 철강 비수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감산이 실제로 약해질 경우 철강시장 실망감이 커질 것이기 때문

Neutral (유지)

	PER(배)	PBR(배)
KOSPI	9.5	1.0
Sector	8.7	0.5

Sector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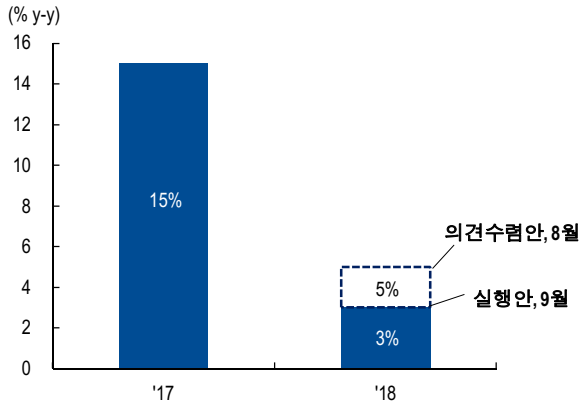


업종 시가총액 38,500십억원 (Market 비중 2.2%)
주: KRX업종 분류 기준



Analyst 변종만
02)768-7597, will.byun@nhqv.com
RA 예정배
02)768-7208, kevin.yejb@nhqv.com

그림1. 실행안의 PM2.5 3% 감축은 의견수렴안보다 낮아진 것



자료: 중국 언론,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철강가격 높은 수준, 철광석 가격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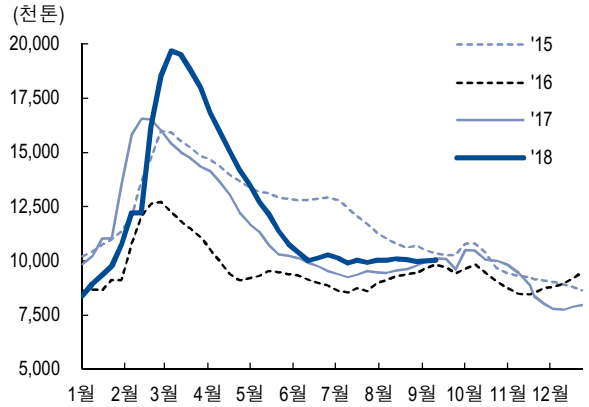
자료: Mysteel,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중국 고로가동률은 전년대비 약 6%p 낮아



자료: Mysteel,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유통재고 급증 후 예년 수준으로 감소



자료: Mysteel,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